

[왜?] 김부식은 왜 삼국사기를 편찬했나?

저자 (Authors)	이강래
출처 (Source)	내일을 여는 역사 ,(16), 2004.6, 130-143(14 pages)
발행처 (Publisher)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643580
APA Style	이강래 (2004). [왜?] 김부식은 왜 삼국사기를 편찬했나?. 내일을 여는 역사(16), 130-14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19/11/03 14:27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김부식은 왜 『삼국사기』를 편찬했나?

이 강 래

왜 『삼국사기』인가?

『삼국사기』는 한국의 고대 삼국을 서술 대상으로 하여 편찬된 고려 중기의 관찬 사서이다. 그러므로 『삼국사기』는 한국의 고대를 들여다 보려는 다양한 맥락의 시도에서 일단 하나의 유효한 창으로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삼국사기』라는 비좁은 창을 외면한 채 고대 삼국의 마당에 들어설 다른 적절한 대안이 없다는 데 있으며, 그보다도 정작 이 평범한 사실은 곧잘 간과되고 마는 데 있다.

이강래 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로서 『삼국사기 전기론』, 『삼국사기1·2』(역주), 「삼국사기를 위한 변명」, 『한국고대사를 위한 삼국유사의 독법』, 「최치원의 고대인식」, 「후백제의 당대인식」, 「삼국사기의 왜(倭) 인식」 등 많은 논저가 있다. 현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 한국 고대사 관련 기본 자료의 성격 및 형성 과정, 그리고 그를 통해 본 한국 고대인들의 사유방식 등 주로 사학사적 맥락과 지성사적 관점에서 한국 고대 문헌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한국의 고대로 안내하는 유일한 근본 텍스트로서 『삼국사기』의 위상에 대해 일부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몇 가지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

우선 시공간적으로 고대 삼국의 전부 혹은 일부를 서술 대상으로 공유하는 다른 문헌들이 있으며, 그 문헌들의 서술내용과 『삼국사기』의 서술내용이 종종 상충한다는 것이다. 다른 문헌들이란 편찬 당대의 중화적 세계질서의 구축을 겨냥한 『삼국지』 등 중국사서와, ‘삼국의 본사’를 전제한 위에 ‘삼국의 유사’(삼국의 ‘본사’에 빠진 ‘유사’, 즉 ‘나머지 일’을 기록함)를 자처한 『삼국유사』 등 국내 후속 자료들을 이른다. 이때 고려할 요인은 편찬 시기의 선후 문제 외에도 편찬 주체의 동기와 관점, 그리고 그 인식이 적절한가 등이 균형 있게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금까지 삼국에 관련된 고고학에서 거두어진 유적·유물 자료가 보여주는 지표적 정보 가운데는 『삼국사기』 문백과의 괴리를 설득력 있게 극복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들 유적·유물은 『삼국사기』의 서술내용을 뒷받침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그를 부정하거나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때 연구자들은 어떤 논리와 관점에서 양자의 상충을 용해 혹은 설명할 것인지를 탐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삼국사기』는 사료와 사관의 두 측면에서 모두 한국의 고대를 적실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아우르지 못했거나 아마 의도적으로 변질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엄밀히 말해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논의를 하려면, 예외 없이 『삼국사기』가 전해주는 구체적인 개별 정보에 대해 비판적 검증은 전제해야만 한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한국 고대사 연구의 가장 근본



김부식의 표준 영정

문제가기도 하다. 더구나 이 문제는 편찬을 주도한 김부식의 의도에 직접적인 혐의를 두고 있으므로, 특히 범상하게 넘길 일이 아니다. 그러나 쉽게 반론하기 힘든 이 완고한 불신에 성급히 동의하지 않고자 한다면,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던 당대의 정치적·지적 환경과 편찬 대상의 역사적·자료적 토대를 신중히 살필 것을 거꾸로 다시 제안할 도리밖에 없을 듯하다.

한편 이처럼 세 가지 범주의 회의론은 한결같이 삼국시대를 매개하는 『삼국사기』의 절대 비중, 즉 그에 버금가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을 역설적인 맥락에서 수긍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삼국사기』는 편찬되어 바쳐진 직후부터 다양한 논점에서 비판의 과녁이 되어왔으며, 그 비판의 흐름은 시대와 관점에 따라 탄력 있게 변용되면서 오늘에 이어지고 있다. 다만 날로 연구 역량이 증대되고 고고학 성과가 축적되면서 『삼국사기』의 사실성에 대한 의혹은 일부나마 정돈되는 추세에 있으며, 각 방면의 심층적인 검토 결과들은 이전에 평면적으로 이해한 데서 생긴 한계를 폭넓게 극복해 가고 있다. 따라서 논의는 끝나지 않았지만, 여러 형태로 사료의 정확성과 사서의 신빙성이 함께 제고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대체로 이와 관련된 논의는 개별 사료에 대한 비체계적 검증

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파편적 정보가 특정한 논리 속에서 유효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례 발굴에 지나지 않는 대부분의 논의는, 사실 『삼국사기』 자체 논리와는 단절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끝내 유의할 것은 『삼국사기』의 자체 논리이며, 그에 내재된 자체 인식이라고 본다. 또한 역사는 시대의 소산이며, 역사가 역시 그의 시대를 환경으로 사고한다는 점에서, 『삼국사기』는 12세기 중엽 고려사회를 기본 토대로 삼아 조명되어야 옳다. 시대와 유리된 개인의 삶을 상상할 수 없는 한편, 저자의 개성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저술 또한 찾을 수 없는 까닭이다.

『진삼국사기표(進三國史記表)』의 논리

『삼국사기』의 객관적 위상에 동의할 때, 마땅히 김부식의 ‘정치적 목적’ 혹은 ‘은폐된 의도’에 주의하기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은 일단 그 자신이 천명한 『삼국사기』 편찬의 변을 가감 없이 검토하는 일이다. 1145년(인종 23년) 음력 12월, 김부식은 『삼국사기』 편찬을 마치고 인종에게 올린 표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앞드려 헤아려 보건대, 성상 폐하께서는 요임금의 문사(文思)를 타고 나시고 우임금의 근검을 본받으사,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정사를 돌보시는 사이에도 널리 옛일을 섭렵하시어 신에게 이르셨나이다.

“오늘날 학사들과 대부들이 오경(五經)이나 제자(諸子)의 서책과 진·한 시대 이래 역대 중국 사서에는 간혹 넓게 통달해 자세히 말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일에 이르러서는 갑자기 망연해져서 그 시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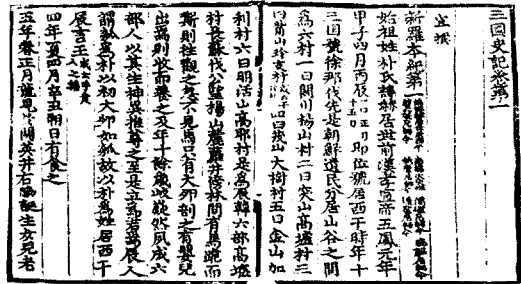
을 알지 못하니 매우 한탄할 일이다. 하물며 저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는 나라의 기업을 열고 술의 세 발처럼 서서 예로써 중국과 교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범엽(范曄)의 『한서』와 송기(宋祁)의 『당서』에는 모두 삼국의 열전이 실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 중국의 일은 자세히 하고 외국의 일은 간략히 하여, 삼국의 사실이 다 갖추어 실리지 못하였다. 또한 『고기(古記)』는 문자가 거칠고 졸렬하며 사적이 빠지고 없어져서, 군후(君后)의 선악과 신하의 충사와 나라의 안위와 인민의 치란을 다 드러내어 권계로 드리우지 못한다. 이제 마땅히 박식하고 뛰어난 재사를 얻어 일가의 역사를 이루어 만세에 전해 해와 별처럼 밝게 할 일이다.”

인용문의 대강은 형식상 인종의 견해이다. 그러나 동시에 인종의 견해를 빈 김부식의 견해일 수도 있으며, 그렇다면 이는 김부식이 표방한 『삼국사기』 편찬의 당위론이기도 하다.

문제의식의 발단은 당시 지식인의 행태에 있다. 중국의 경·자·사를 두루 섭렵하면서도 자기 나라의 역사에 몽매한 것은 균형 있는 지식인의 모습일 수 없다. 고려는 삼국을 아우른 후속 왕조이니, 이때 자국사란 삼국시대사를 이른다. 즉 고려는 ‘일통삼한’을 이루었으며, 그 경우 일통의 현실 대상은 신라와 후백제와 후고구려이지만 그것들은 또한 과거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의 연속이거나 부활인 셈이다. 그러므로 고려의 일통에 고구려가 배제되지 않는 한, 이 발언에 발해사가 포섭되지 않은 점은 일단 논외로 해도 좋다.

다음에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엄연한 삼국시대사가 없다는 점이었다. 물론 중국의 정사에도 삼국의 사적이 있으나, 그것은 중국 중심적 부수물로서 온당하지도 충분하지도 않다. 또한 고려 측의 기존 삼국 관련 역사 기록 역시 적실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아마 이규보가 「동

명왕편(東明王篇)에서 지
적한 『구삼국사(舊三國史)』
가 그 대표적인 기존 역사
물이었을 것이다. 이를 포
함하여 『고기』로 통칭된 고
유 역사물들의 한계는 곧
그를 극복하게 되는 『삼국
사기』의 지향을 규정한다.



1512년(중종 7)에 판각된 정덕본(正德本) 『삼국사기』

이야말로 바로 김부식이 제시한 『삼국사기』 편찬의 구체적 동기 혹은
논리가 될 것이다.

그는 『고기』가 문체와 내용과 효용성 모두에 걸쳐 미흡하다고 판단
하였다. 따라서 김부식이 간명하게 제시한 『삼국사기』의 편찬 목적은
자연스럽게 세 가지로 간추려진다. 첫째는 문장에 있어서 고문(古文)
의 회복이요, 둘째는 관련 기록의 충실한 보완, 그리고 현실에 대한
권제에 합당할 것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오대(五代)의 후진(後晉)에
서 편찬한 『구당서』를 비판하면서 『신당서』 편찬의 당위성을 토로한
송나라 지식인들의 논리와 비슷하다. 그렇다면 결국 『삼국사기』는
『구당서』에 대한 『신당서』의 위상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김부식이 인종의 견해를 빌어 분석한 『고기』, 즉 지금은 없
어진 『구삼국사』를 포함한 국내 고유 자료들의 한계를 정당한 파악으
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물론 그 한계는 일단 12세기 고려 지식관료의
판단일 뿐이다. 과연 기존자료들의 어느 일면이나 특징이 극복되어야
할 한계인지는 시대와 관점에 따라 무한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다
만 기존의 정사 『구당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당서』를 편찬
하면서 동원한 북송 지식인들의 논리를 삼국에 관한 기존 사서였던

『구삼국사』가 있음에도 『삼국사기』 편찬을 주도했던 김부식이 틀림없이 주목하고 활용했으리라고 믿는다. 요컨대 적어도 사서의 측면에서 볼 때, 김부식이 표방한 『삼국사기』 편찬의 당위론은 일단 수긍해도 좋겠다.

번영과 위기의 12세기 고려, 그리고 대안의 상층

한편 『삼국사기』를 배태한 12세기는 귀족 중심의 유교주의 통치 이념으로 출발한 고려전기 사회의 난숙함이 바야흐로 정점을 지나, 차츰 쇠락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이다. 김부식이 정치 현장에서 보낸 숙종·예종·인종의 3대 50년 동안 고려사회 내부에서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난맥을 위시하여, 이전 시기 번영의 퇴조와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의 도래가 함께 감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번져가는 퇴영의 그림자를 어떻게 떨쳐버릴 것인가와 좁혀 들어오는 파국의 예감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있었다.

국제 정세의 격변도 국내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노쇠한 거란의 요(遼)를 대신해 여진의 금(金)이 무서운 속도로 제국을 형성하고, 고려에 새로운 외교 관계를 강요해 왔다. 고려와 여진 사이의 전통적 관계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굴욕적 외압은 국내외의 왕조사 전개에 큰 파장을 예비한 것이었다.

물론 고려 지식관료들은 왕조의 모순을 포착하는 데 둔감하지 않았다. 다만 대안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주요 대안의 하나를 제도개혁론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제도의 개혁보다는 훼손된 제도 본연의 정신을 회복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서경세

력과 윤언이(尹彦頤) 등이 전자를 대변했다면, 김부식은 후자의 중심축을 형성하였다.

아마 묘청(妙淸) 등이 추진한 서경으로의 천도 주장은 제도개혁론의 극단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다. 도참사상에 근거한 그들의 주장은 국가 위신의 추락과 왕권의 무력화, 그리고 탄력성을 상실한 지배계급의 분열을 토대로 한때 설득력을 얻기도 했다. 당시 품미하던 신비주의적 사고의 저변은 의외로 넓었고, 그 위력은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에까지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당대의 강력한 사조의 하나로서, 중국적으로는 현실의 정치 이데올로기인 유교적 세계관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김부식은 이를 진압할 총책으로 지목되었다.

1년을 넘긴 지구전에서 김부식은 승리하였다. 1136년 그는 조정의 최고 권력 수반에 올랐으며, 윤언이를 서경 세력으로 지목해 탄핵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1140년 인종은 김부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윤언이에게 사면령을 내렸다. 왕 이하 관료들은 이미 묘청에게서 입은 충격을 상당히 극복하고 있었다. 더구나 서경세력의 정책이란, 그 실현 가능성 여하에 세심하게 주의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비난할 명분은 없었던 것이다. 요컨대 윤언이의 복권은 김부식의 퇴조를 예고한다. 실로 4년이란 하나의 대안이 검증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또한 과연 어떤 대안이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력을 지니고 있었던가 하는 질문은 어려운 숙제로 남겨졌다. 이 모색의 시기를 주도했던 당사자들이 다 무대에서 사라진 얼마 후, 1170년 무신정권의 수립과 함께 고려 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떤 대안에서도 무신정권을 염두에 두지 않았거니와, 이 무신정권 100년의 무게는 우리 역사에서 달리 비교할 바가 없다.

어쩌면 양 세력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위기의식에서 발로된 현실 대안의 차이, 그 자체로는 크게 우려할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서로 다른 대안의 충돌은 시대 모순을 해결하는 데 그리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대개 하나의 대안이 득세할 때 반대편의 견해는 잠복해 있을 뿐 완전히 포기되지는 않았다. 사실 현실의 모순에 대한 대안으로서 기존 제도를 혁신하고자 하는 시각이나, 그보다는 제도의 본래 정신에 충실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합의에 비중을 두는 시각은, 언제나 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양자 모두 왕조의 안녕과 번영을 겨냥하고 있는 터에, 유독 어느 한쪽을 비난할 명분은 일단 없다.

김부식과 사마광(司馬光), 좌절된 정치가의 공명대

김부식은 1142년 모든 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3년 뒤 『삼국사기』 편찬을 마쳤다. 그런데 1060년에 이루어진 『신당서』의 편찬 논리가 『삼국사기』 편찬의 당위성을 지지하는 모델이 되었다는 것은 12세기 고려와 송의 지적 교류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것은 중국 중심적 세계관에 동의하고 있던 당시 지적 풍토에서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역사서는 물론, 그를 편찬하는 행위 자체가 현실에서 차지하는 의미 맥락 역시 두 왕조 사이에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리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12세기 고려와 송의 정치 현실에 다시 눈을 돌려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김부식은 12세기 고려사회가 당면한 현실을 타개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윤언이 등으로 대표되는 세력이 주장한 제도개혁론에 맞서 있다. 윤언이는 1133년 인종에게 『만언서(萬

言書』를 올린 바 있다. 『만언서』는 북송의 왕안석(王安石)이 그의 개혁이념을 담아 1058년 송의 인종에게 올린 글이다. 그렇다면 윤언이는 고려의 왕안석을 자임했던 것이다. 송에서는 왕안석이 '신법(新法)' 개혁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구법(舊法)'의 영수 사마광과 운명적 대결을 거듭했다. 무엇보다도 사마광은 왕안석 등의 신법론에 대해 “정치 제도의 변화보다는 기존의 제도를 더욱 잘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두 사람의 명암은 그 지지자들에게 대를 이어 재연되었다. 왕안석의 신법이 강행되자 퇴관을 자청한 사마광은 15년여 동안 낙양에 은거해 『자치통감』의 편찬에 몰두하였다. 『자치통감』의 편찬 시기는 신법의 강행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신법에 대한 사마광의 불신이 『자치통감』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이렇게 보면 신법론자 윤언이가 복권되자 스스로 정계로부터의 퇴출을 결정한 김부식과, 뒤이은 그의 『삼국사기』 편찬은 사마광과 그의 『자치통감』을 환기시킨다. 당시의 고려 지식인들 사이에는 왕안석과 사마광의 신법 파동의 추이가 익히 알려져 있었으며, 따라서 김부식은 『자치통감』 자체뿐 아니라 그에 반영된 사마광의 의도를 바로 보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 김부식은 인종에게 사마광의 『유표(遺表)』를 강의하면서 그를 변호하였다. 사마광의 『유표』는 1082년에, 그 자신이 죽은 뒤 신종에게 올릴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스스로의 죽음을 예감하고 쓴 『유표』에는 왕안석의 신법 개혁에 대한 격렬한 비판과 함께, 자신의 충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대한 좌절감과 울분이 절절이 스며 있다. 아마 김부식은 정치가 사마광의 현실인식에 동의했던 것이며, 역사가 사마광을 모범으로 삼았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나아가 김부식은 『삼국사기』

편찬을 통해 피력하고자 했던 생각은 물론 그 방법에서도 사마광의 『자치통감』을 하나의 모범으로 여겼다고 판단한다. 사실상의 퇴출을 강요당한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자신의 충의와 정당함을 토로할 공간을 발견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김부식은 고려의 사마광을 자처했다. 『자치통감』은 1084년 신종의 죽음에 4개월 앞서 봉정되었다. 공교롭게도 고려의 인종 역시 『삼국사기』가 진상된 후 두 달 만에 승하했다. 물론 김부식이 사마광을 스스로의 모범으로 삼았다 하여 『삼국사기』가 『자치통감』을 겨냥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12세기 고려의 지적 토대와 역사 편찬의 경험은 북송의 그것을 온전히 내재화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김부식은 다만 정치가 사마광의 현실인식 및 대안에 동의했던 것이며, 역사가 사마광이 『자치통감』 편찬을 통해 토로하고자 했던 바에 공감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사마광과 김부식이든 혹은 왕안석과 윤언이든 간에, 그 대비 쌓에서 각자의 처한 사회 가운데 기능하는 역할과 위상 이상의 것을 직결시킬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두 왕조가 연이어 경험하거나 공유한 여러 현상과 지표들을 비교하는 것은 그것대로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12세기의 고려에서도 왕안석의 개혁이념이 설득력을 지닐 만한 토대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아울러 그에 반하는 사마광의 논리가 수용될 만한 축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세계, 고대의 총합과 절제된 향의

역사서로서의 『삼국사기』 편찬은 기존 역사 자료들의 한계를 극복

하고 삼국시대사에 대한 새로운 종합을 의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구삼국사』로 지칭된 자료를 위시로 한 『고기』류나 금석문, 그리고 새로 입수한 중국의 사서 및 경서·문집이 활용되었다. 여기에 12세기 유교적 지식인의 관점에 충실한 의미 부여를 적절히 안배하는 작업이 아울러졌다. 이렇게 하여 『삼국사기』는 당대 사회의 역량으로 도달한 합리적인 '본사'의 지위를 획득하였다.

물론 고려 당대부터 이미 『삼국사기』가 포괄하고 있는 역사에 대해 다양하고도 폭넓은 비판이 촉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 어떠한 비판의 논거도 『삼국사기』 '본사'로서의 위상 자체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즉 조선 건국의 주체였던 성리학자들도 여러 가지 역사 편찬 형식이나 역사 인식의 측면에서는 『삼국사기』를 비판하면서도, 그 '본사'로서의 위상을 수긍하였다. 조선 초의 대표적 사서들인 『동국사략』·『삼국사절요』·『동국통감』 등 역시 삼국시대의 서술에서 『삼국사기』를 벗어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삼국사기』는 기존의 것에 대한 극복과 종합인 동시에, 모든 새로운 삼국사 인식의 근원이자 출발점이었던 것이다. 『진삼국사기표』에서 제시한 김부식의 당위론은 적어도 그 진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것은 실로 '사실(史實)'의 측면에서는 '고대의 총합'이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세계가 감당하고 있는 또 다른 마당, 즉 '사론(史論)'의 영역이야말로 김부식의 내면을 보다 적실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사론이란 역사서를 편찬하는 사람이 특정한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해 자신의 가치 기준과 견해를 적극적으로 밝힌 부분이다. 말하자면 『삼국사기』는, 넓게는 고려 중기 12세기의 유교적·합리적 세계관에 충실한 산물인 동시에, 좁게는 찬자 김부식의 삶과 정치적 역정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부식의 정치적 현실

과 그가 작성한 사론에 나타난 주요 관점 사이에는 긴밀한 유기적 관계가 개입되어 있기 마련이다. 실제 많은 사론들에는 면밀하고 섬세한 논변과 절제된 자기 변호의 장치가 은연중 드러나 있다. 어쩌면 김부식에게 ‘사실’ 자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많은 오류와 모순, 시대의 맥락을 벗어난 정보와 자료 취사 기준의 혼란 등은 그러한 의혹을 증폭시킨다.

요컨대 김부식은 『삼국사기』의 사론을 통해 왕에 대한 항의와 자신의 변명을 배려하였다. 그는 정상적인 왕위계승의 관철에 집착하였고, 신라를 비롯한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했으며, 신비주의적 현실 인식을 비판하고, 자민족에 대한 애정과 중국 중심적 필법에 대한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군신관계에 있어서 그가 어디에 주안점을 기울이고 있었는가에 깊이 유의하고자 한다. 그는 고구려의 명재상 을파소를 을파소에게 만든 것은 유능한 인재에 대해 결연한 신임을 견지한 고국천왕의 명철함이었다고 보았다. 김유신에 관한 사론이 그의 구체적 공적보다는 대부분 신라 왕실에서 보여준 의심하지 않는 신뢰로 채워져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따라서 김부식의 의도는 명백하다. 고국천왕이나 신라 왕실에서 을파소와 김유신을 대하는 태도의 정당함은 인종과 김부식 자신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왕과 귀족 관료들은 서경 전역의 충격을 빠르게 회복했다. 결과적으로 서경의 사단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대파국의 미세한 표출에 불과했던 것이며, 김부식의 역할은 그를 미봉했거나 지연시킨 데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서경 전역의 연루자들은 속속 복권되었고, 그에 따라 김부식의 정치력은 훼손되었다. 김부식은 인종에 대한 사찬

에서 인종의 유일한 오점으로 서경 천도설에 경도되어 전란을 자초한 일을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군신 간의 질서를 강조하고 이자겸에 대한 왕의 특례 조처를 강경하게 반대했던 그는, 오히려 이자겸이나 척준경에 대한 인종의 유화적 처리방식을 긍정하면서도, 유독 서경 관련 사항에 대해서만은 냉정한 비판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그는 백제 동성왕을 빌어 인종에게 항의하였다. 동성왕은 신하들의 항소에 대답하지 않았으며, 결국 피살되고 말았다. 동성왕은 강박하고 교만했던 것이다. 김부식은 사마광이 왕안석을 비판한 맥락을 동성왕에 적용하였다. 이 절제된 항의는 군주에 대한 신하의 일방적인 충성을 강조한 여타의 예들에 비추어 매우 특이한 위상을 가지거니와, 이야말로 김부식의 좌절의 깊이를 반영하고 있다. 정치가 김부식의 현실 인식과 대안은 이처럼 『삼국사기』라는 역사서 속에서 다시 변명의 마당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삼국사기』는 삼국시대를 설명하는 '본사'인 동시에, 12세기 중엽 고려 왕조의 위기에 대해 김부식이 제안한 하나의 '대안'이었다.